

한일의원연맹의 역할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인가?

- 한일·일한 의원연맹은 한일관계의 가교로써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음
- 그러나 최근 한·일 양국의 정권교체를 계기로 한일의원연맹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고, 이것이 독도문제를 둘러싼 한일간 대립 격화의 원인(遠因)이 될 수 있음

* 본 내용은 日本經濟新聞(2012.9.9)기사를 정리 한 것임

□ 한일·일한 의원연맹, 한일관계의 윤희유 역할

- 40년 역사를 자랑하는 한일·일한의원연맹이 기로에 놓여있음
 -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 및 일왕의 방한을 둘러싼 발언으로 한일관계가 빠걱거리는 가운데, 의원연맹에서 쌓아온 파이프가 작동하지 않고 있음
- 일한의원연맹의 간사장인 자민당 누카가 후쿠시로(額賀福志郎) 前 재무상은 8월 10일 한일의원연맹의 간부에게 「李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한다는 데 사실인가」 하고 전화로 확인
 - 한국의 의원은 「악천후로 갈 갈 수 없는 것 같다」 고 대답
 - 2008년 취임 이후 영토나 역사문제로 일본에 대한 배려를 해왔던李 대통령인 만큼, 누카가 의원은 뒤통수를 얻어맞은 느낌이었다는 것

- 일한의의원연맹은 거세게 항의하는 담화를 발표하고, 한일의의원연맹 사무국에 팩스를 보냈으나, 한국 측의 의원연맹 회장은李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으로 지난 5월 물러난 이후 공석
 - 연맹의 간부체제도 정비되어 있지 않고 연락도 두절된 상태에 빠지는 등 의원연맹 창구가 기능하지 않은 것은 과거에는 없었던 상황임
- 한일관계의 교량으로서 의원연맹은 고비 때마다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음
 - 한·일 양국은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, 1972년에는 「한일·일한 간 친회」를 발족
 - 이를 발전시키는 형태로 1975년에 현재 한일·일한의의원연맹을 설립, 합동회의를 양국에서 상호 교차 개최하면서 의원들 간의 인맥을 구축
- 한·일 양측 모두 총리나 국회의장 등을 경험한 거물급 의원이 연맹의 회장을 역임했다는 점이 영향력의 원천이 되었음
 - 1982년에는 일본의 역사교과서에서 일본군의 침략 등에 관한 기술이 「역사를 왜곡하고 있다」고 한국이 비판했던 문제 등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해결을 위해 노력

〈한일관계를 둘러싼 주요 사건〉

	한국측	일본측	주요 사건
1975~ 1980년대 초	김종필 전 총리 정일권 전 총리 박태준 전 총리	후나다나카(船田中) 전 중의원의장 가스카잇코(春日一幸) 전 민사당 위원장	한일·일한의원연맹 발족(1975)
1980년대 초~ 1990년대 초	이재영 전 국회의장 권익현 전 민정당 대표위원 박태준 전 총리 김재순 전 국회의장	야스이젠(安井謙) 전 참의원 의장 후쿠다다케오(福田 赳 夫) 전 총리	일본의 역사교과서 검정 문제화(1982) 나카소네 총리가 야스쿠니신사 공식적으로 참배 종군위안부 문제로 고노 관방장 관 담화 발표(1993)
1990년대 중반~ 2000대 초	김윤환 전 한나라당 고문 박태준 전 총리	다케시타노보루(竹下登) 전 총리	무라야마 수상이 식민지 지배에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 사 과 표시(1995) 김대중 대통령 방일, 미래지향 공동선언 발표(1998)
2000대초~	김종필 전 총리 문희상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공석	이토슈이치로(伊藤宗一郎) 전 중의원의장 모리요시로(森喜郎) 전 총리 와타나베고조(渡部恒三) 전 중의원부의장	고이즈미 수상이 야스쿠니신사 참배(2001-2006) 월드컵 공동개최(2002) 한일 정상 셔틀외교 시작(2004년) 한일FTA교섭 중단(2004년) 독도 주변 해양조사를 둘러싼 대 립(2006) 종군위안부 문제로 한국이 정부 간 협의 요구(2011) 이 대통령 독도 방문(2012)

자료 : 日本經濟新聞(2012.9.9)

□ 월드컵 공동개최 기반 다져

- 상징적인 것은 2002년 한·일이 공동개최한 월드컵축구대회임
 - 양국이 단독 개최를 추진했던 상황에서 한일관계의 미래를 생각하여 한·일 양측의 의원연맹 회장인 김윤환씨와 다케시타 노보루 전 총리가 중재 역할

- 1995년 김윤환 씨가 방일, 다케시타 씨와 회동, 한일공동개최를 타진
- 과열된 유치경쟁으로 공동개최 구상은 좀처럼 진전되지 않았으나, 1996년 개최국을 결정하는 국제축구연맹(FIFA)이사회를 앞두고, 다케시타 씨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김영삼 대통령에게 제안, 한일공동개최 쪽으로 가닥을 잡음
- 1973년에는 일본에서 납치, 1980년 사형판결을 받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둘러싸고 의원연맹 간의 파이프가 가동
- 회장대행이었던 가스카잇코(春日一幸) 전 민사당 위원장이 1981년 5월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집행 중지를 요구하는 친서를 전하기로 결정
- 당시 민사당 소장파 의원으로 지금은 민주당 상임간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나카노 간세이(中野寛成)씨를 밀사로 파견, 청와대에서 허문도 대통령비서관에게 친서를 전달
- 당시 허문도씨는 「대통령은 현명한 판단을 할 것」이라고 회답하자, 나가노씨는 「사형은 집행하지 않을 것」임을 확신했다고 회고

□ 정권교체의 영향

- 정권교체로 의원연맹의 영향력은 점차 기울기 시작
- 일본에서는 2001년 총리로 취임한 고이즈미 수상이 자민당의 파벌 정치 타파를 외치며 파벌을 흔들기 시작, 거물급 의원들의 영향력이 저하
- 한국에서도 2003년 김대중 대통령이 퇴임, 이른바 「3김 시대」로 불리는 카리스마 지도자들의 보스정치에 종언을 고했

- 한일 모두 구폐로부터 탈피한 면은 있으나, 이견을 제압할 수 있는 거물급 의원들이 감소하면서 의원연맹의 영향력이 급격하게 축소
- 멤버들의 교체도 변화를 가져왔음
 - 일본에서는 2009년 민주당 정권 탄생 후, 자민당의 모리요시로(森喜郎) 전 총리가 의원연맹 회장에서 물러나고, 민주당의 와타나베고조(渡部恒三) 전 중의원 부의장이 취임, 운영권이 자민당으로부터 민주당으로 넘어감
 - 한국 측도 일본어를 할 줄 아는 지일파 의원들이 잇따라 퇴장, 의원연맹에서 담화를 나누는 것도 영어로 하거나 통역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짐
- 한국에서는 이상득씨의 부정사건 연루 영향도 큼
 - 이상득씨는 이명박 정권의 대일정책에도 영향력이 있고, 일본인 맥도 풍부한 편으로 2011년 방한한 나카노 씨에게 「독도를 정치 문제화 하고 싶지 않다」 고 함
 - 한국에서는 「그가 건재했다면 사력을 다해서 대통령의 독도방문을 막을 것」 이라는 소문도 있었음
- 일본에서는 정권교체 이후, 의원연맹의 사무국 체제도 바뀜
 - 다케시타 씨가 회장을 역임할 당시에는 다케시타 사무소가 있던 나가다쵸 TBR 빌딩에 전용 사무실과 3명의 상근 직원들을 두는 등 자민당시절에는 회장이 자금 면에서도 의원연맹의 활동을 지원
- 지금은 사무국장을 역임하는 있는 민주당 나오시마 마사유키(直嶋正行) 전 경제산업대신의 국회사무실에 두고 직원들이 겸무하고 있음

- 현재 의원연맹의 다수의 의원은 민주당 소속이나, 민주당 의원들은 의원교류 경험이 풍부하지 않음
- 모리 전 수상은 “지금은 어느 나라와도 의원들 간의 파이프라인이 거의 없어지고 있으며, 이름만으로는 의원연맹 회장이 활동할 수 없다”고 슬회

□ 시사점

- 한일의원연맹이 한일관계의 교량으로서 윤활유로서 한일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온 점은 높이 평가될 수 있음
- 그러나 일본경제신문의 기사 제목에서도, 한일의원연맹의 파이프 역할 축소가 독도문제 대립격화의 한 원인이지만 「根因」이 아닌 「遠因」이라고 했듯이 한일의원연맹이 한일관계 현안을 해결하는 역할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임
- 이상득씨의 역할을 부각시키고 있지만,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전적인 사안으로서, 그가 대통령의 독도방문을 막을 수도 있었으며, 그랬더라면 한일관계가 이렇게까지 악화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가정임
- 중요한 것은 사후적으로 일이 터진 현 시점에서 이에 따른 파급 및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며, 이에 종래와 같은 한일의원연맹이라면 일정한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임
- 다만, 이번 한일관계의 갈등은 과거 월드컵 공동개최나 김대중 사건의 경우와는 성격이 다른 영토, 역사문제 등 한일의 정체성과도 관련이 있는 사안인 만큼, 한일의원연맹이 해결하는 데 한계는 있을 것임

<참고자료>

日本經濟新聞(2012.9.9.)

<참고 : 연대별 한일 관계 주요 사건>

